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21,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유다의 종말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21회기, 신바벨론 제국과 유다의 종말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여기서 녹화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테이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기쁨이자 특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여기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나의 좋은 친구 Ted Hildebrand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중요한 시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초강대국의 시대이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300년은 정확히 30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지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세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완벽한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는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일종의 동맹입니다. 따라서 그 동맹은 남쪽의 바벨론 세력과 동쪽의 메대 세력과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무대를 설정하기 위한 지형을 저와 함께 그려보실 수 있다면 여기 보라색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계곡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이란이나 다른 이름으로 분리하는 것이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그 다음 자그로스 산맥 지역의 동쪽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전형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메대와 동맹을 맺었고 메대 사람들은 실제로 앗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주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스키타이인(Scythians)이라고 불리는 이 동맹에 합류한 사나운 기병 집단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대초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동맹과 아시리아가 분열되고 심하게 약해졌다는 사실 사이에서, 그것은 이 제국이 종말을 맞이할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문서를 클릭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자료를 다시 가져오는 데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면서 세계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이 장악하는 70년 후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 시대는 바빌론이 앗시리아와 정신분열적인 관계에 있던 시대이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을 일종의 종교적 애정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위대한 종교적 과거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에는 삼천년까지 이어지는 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을 존경했지만 바빌로니아인들은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앗시리아인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치 주체가 나란히 살았던 기간 내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앗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나보폴라사르가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따라서 나보폴라사르는 이제 바빌론의 왕이지만 요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이므로 이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빌로니아는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독립체의 일부입니다. 이제 제대로 칼데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아람인을 갈대아인이라 부르고, 북쪽의 아람인을 아람인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보폴라살은 남부 아람 지역에 불과한 칼데아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는 626년에 바빌론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 때는 아시리아가 어느 정도 해체된 상태에 있던 때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가 미디어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617년에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몰아냈습니다.

앗수르의 마지막 군대가 하란으로 퇴각한 후 611~610년에 공격을 가했고, 그러는 동안 대규모 이집트군이 앗수르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왔다. 두 군대는 609년에 충돌했고, 분명히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바로가 앗수르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요시야의 노력으로 격퇴당했지만 요시야의 격퇴를 받은 후 몇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계속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일어난 놀랍고 혼란스러운 사건의 전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아시리아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이상한 일련의 새로운 동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시리아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순간을 생각했을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바빌로니아인에게서 아시리아인을 구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아시리아인들을 도우려고 이스라엘 지역을 거쳐 북쪽으로 하란과 가까운 곳까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609년에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마지막으로 큰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카르케미스 전투입니다.

카르케미쉬(Carchemish)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어느 시대에도 흥미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빌로니아인과 미디어인으로 구성된 이 새로운 동맹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의 신흥 동맹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중요한 측면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위대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군이 이 지도에는 없는 이곳 므깃도를 통과하면서 갈멜산맥을 통과하는 고개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군대가 선호했던 고개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요시야는 애굽인들을 막으려 했고, 그곳에서 요시야는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다 정교회 신도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왕이, 혹은 구약 전체 기간 중 가장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이끈 유다가 패하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와의 전쟁에서 그의 삶. 물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지난 테이프에서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신문의 첫 페이지에서 신학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비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요시야의 소위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위에서 강요한 개혁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그의 나라 유다의 사회 계층에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의 죽음으로 남왕국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시야는 목숨을 잃었고 이제 이집트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서 격퇴된 후에도 그들은 몇 년 동안 그 지역을 계속 통치하며 그 기간 동안 여호야קים 유다의 왕위에 앉습니다. 친구들이여, 지금쯤이면 유다가 불과 한 세기 전보다 훨씬 더 작은 선수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예전과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609년에 전투에서 패한 후, Necho는 회복하고 재건하고 북쪽으로 진군했으며, 그곳에서 605년에 Carchemish에서 벌어진 강력한 전투에서 이 두 군대가 만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패주한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하맛에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문으로 길이 열렸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죽음으로 인해 이집트인들은 패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그미스 이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군대장관인 느부갓네살은 대관식을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라비아의 큰 사막을 건너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다시 올려 놓겠습니다. 지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르케미시에서, 그리고 다음 해 하맛에서 이집트 군대는 반복적으로 패주했고,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이것은 강력한 플레이어로서 이집트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맛 전투 이후 이곳의 군대는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느부갓네살은 이 지역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에서 왕위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왕조이기 때문에 그는 바빌론으로 돌아가 다른 누군가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자신이 대관식을 치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안전하고 정상적인 길을 따라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대신 생명과 사지를 무릅쓰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대관식을 치르고 고대의 위대한 왕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바빌론의 지배를 받는 짧은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짧았고 결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달리 바빌로니아 제국의 핵심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통치한 전부였으며, 느부갓네살은 고대의 위대하고 유명한 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이집트로 가려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제국들이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시키려고 했던 인질들을 인질로 잡고 돌아가서 바벨론의 방식과 사상을 교육하고 바벨론을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하맛 대전투가 끝난 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남쪽으로 진군하면서 다니엘, 에스겔 및 다른 사람들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 사람들을 섬기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데, 나는 그것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과정은 아니지만,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마지막 날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97년에는 바빌론에 대항하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이 늦은 단계에서도 이것이 조금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중서부의 한 카운티보다 그리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약하고, 군사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군대를 서쪽으로 이끌고 옵니다.

그들은 항복하는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약 10,000명의 유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이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노예 국가가 되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는 것보다 자기 나라에서 바벨론 사람의 종노릇하는 것이 나으니라 597년의 난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587~586년에 그들은 두 번째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끈 반란은 시드기야가 자신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을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왔고, 예레미야가 밤에 그에게 와서 예레미야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중동이고, 아마도 현재의 종교적 긴장을 과거 세계에 부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종교인, 종교 민족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드기야의 욕망을 무시하고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은 그의 군대를 서쪽으로 이끌고 비교적 짧은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제 그 주민들은 바빌론으로 추방됩니다.

시드기야는 특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반란이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의 영토로 들어왔을 때 그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사해를 거쳐 남쪽으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의 기병대가 그를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오고, 거기 예루살렘 성에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이 있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모든 가족을 하나하나 살해하였다. 시드기야와 아내와 자녀를 두고 시드기야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증거 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대한 이 반역으로 인해 매우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통치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물론 유다는 고대 세계의 뷔페 식탁에서 딸꾹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이전의 논평에서 땅은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왕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칠십 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것임이니라 이 시기는 유대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시 멈춰 설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춰서 그들이 어떻게, 왜 살아남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앗수르-바벨론 환경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른 민족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정체성, 그리고 남은 자들이 멸망할 때에도 지속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였느니라.

성경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종교 활동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70년 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 관해 실제로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오는 사람은 약 5만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어조로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바빌론으로 유배되기 전에 여러분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큰 문제에 대해 읽었을 것입니다. 그 큰 문제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전 의식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생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새로운 강조점의 출현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반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재건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빌로니아 시대에 대해 유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문학적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재성, 즉 유대인 천재성의 증거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교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응을 공식화하는 그들의 능력이며, 그 새로운 대응은 그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500년 동안, 그들은 아마도 나라 없이 살아남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2,50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형성기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성경 본문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를 돌리도록 강요했습니다. 물론 책이 없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두루마리는 크고 번거로웠으며, 구약성서만큼의 문서를 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유배 기간 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문자로, 의식에서 율법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형성적인 시간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위대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 신바빌로니아 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비문에는 바빌론에서 이 놀라운 왕이 쌓은 수많은 건축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460년에 이 도시에 관해 말한 것의 대부분은 느부갓네살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빌로니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적인 건축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위대한 왕들의 순위를 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풍화는 신바빌로니아 시대 전체의 특징이다. 아시다시피, 바빌로니아인들은 자신들을 고대 근동 종교사에서 매우 인상적인 바빌로니아 존재의 연속으로 여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생애 말년은 불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문서가 거의 없으며, 이 위대하고 매우 눈에 띄는 왕이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되는 이 기간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병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발작적인 왕족의 오만함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했고, 성경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평균적인 설명은 그가 동물처럼 풀을 먹었기 때문에 소의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병 기간 동안 그는 사실상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그 병에서 구원받은 후 겉으로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왕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방식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큰 용기와 활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군사적 승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에서 엄청난 건축 활동을 한 것으로 더 잘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세계의 이 지역을 여행할 때, 바벨론 유적지를 방문할

때,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의 대부분은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유적입니다. 따라서 그는 물론 다니엘서에 언급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왕 중 한 사람인 나보니두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좋은 인쇄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는 달의 신 신(Sin)에 대해 남다른 충성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집트인과 바빌로니아인 사이의 전쟁에서 거룩한 도시 하란이 멸망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달의 신 신이 학대와 무시를 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이전에 신도였던 곳에 보이는 사원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우르의 여사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티마의 사막 오아시스에 신을 위한 거대한 도시와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여기에 Tima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그는 바빌론의 왕좌를 버리고 티마의 이 사막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달의 신 신(Sin)을 위한 매우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아시스가 있다.

그곳에서 그는 티마 주변에 거대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티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도심은 아니었지만 티마 주변에 강력한 도시가 될 만큼 큰 성벽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 왕의 가장 이상한 행동 중 일부입니다. 그가 왕좌를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왕좌를 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는 티마(Tima)에 거주하여 도시 주위에 거대한 사원과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중 하나는 제가 신봉자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나보니두스의 행동은 종교적 금욕주의자의 행동이었다. 그는 특히 달의 신 c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바빌론에서 떠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빌로니아에 볼 만한 신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나보니두스와 반대로 마르둑에 초점을 맞춘 바빌론의 종교 관료들 사이에는 거의 확실히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자신을 떠나 바벨론을 떠나 10년 이상 이 오아시스에 가서 살았던 것은 그 논쟁을 피하고 방해받지 않고 죄에 헌신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 견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그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려는 다른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소위 종교-정치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정치적 관점은 바빌론의 최고 신이 마르둑(Marduk) 신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Marduk은 서양, 특히 아랍인과 아람인 사이에서 숭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서쪽부터 여기까지, 즉 제국의 서쪽 절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Marduk은 숭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는 나보니두스가 아마도 보이는 것과 같은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신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를 통일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전역에서 숭배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의 신일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내산이 달의 신 신(Sin)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불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도시 예리코가 달의 신 야리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람인과 아랍인 모두 고대 세계의 서쪽 절반 전체가 달의 신 신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아마도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에서 떠나 이곳으로 이주하여 이곳을 달신의 종교적 깃발 아래 바빌론의 비옥한 초승달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종교 중심지로 바꾸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왜 10년 동안 결석했는지 반드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야자수 몇 그루 주위에 거대한 벽을 세웠는지 반드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그리 많지 않은 곳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을 지었는지를 반드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관점도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거나 다소 특이한 동작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수업 노트에서 언급했던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관점이 바로 제가 지경학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560년부터 485년까지 바빌로니아는 200%가 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바빌로니아에서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았고 경제는 강하지 않았으므로 이 견해는 그가 하려던 것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경제 중심지를 재편성할 수 있는 무역로를 재창조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견해가 주장하려는 것은 그가 바빌론에 덜 중점을 두고 제국의 서부 절반에 더 중점을 두는 경제적 무역 이전을 창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니두스 통치 말년에 그들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이유를 설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년에 바빌로니아 위의 연어색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말년에 메대와 바사가 거대한 원호 모양으로 정복하는 데

성공하여 바빌로니아가 사방에서 끊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쪽만 제외하고. 따라서 나보니두스가 메대-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동쪽에서 신흥 강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을 공식화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가 그런 일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경에서 그의 아들 벨사살만큼 유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바빌론에서 왕좌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완전히 퇴위했고 벨사살이 정확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벨사살이 공동 섭정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통치한 것이 아니고 벨사살이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니엘서는 벨사살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벨사살이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왕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당신은 에스더와 같은 책을 읽었는데, 책 전체에 왕이 베푸는 다양한 잔치가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서 벨사살은 성전의 그릇들, 성전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적인 그릇들, 아마도 언약궤를 포로로 가져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마실 그릇으로 내오라고 명령합니다. 글쎄, 파티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갑자기 벽에 신성한 손으로 비밀스러운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파티의 분위기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운명의 연회에서 겁에 질린 자들의 연회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명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바빌론이 포위 공격을 받았는지, 페르시아 군대가 1년 넘게 포위 공격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치는 군대가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베푸는 잔치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글씨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이 말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읽기에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단어는 충분히 쉽습니다.

메네(Mene), 번호가 매겨진 데겔(Tekel), 데겔(Tekel)은 아람어로 세켈(Shekel)을 뜻합니다. 세켈은 달다라는 뜻이므로 숫자를 세고 달아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바르신.

그래서 다니엘은 종교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들여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벨사살아, 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왕국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세계와 언어에서 친구들은 말장난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얻은 단어이며, 우리가 이 단어를 얻은 어근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것은 여기서 단어의 의미이지만 페르시아라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이기도 합니다. 자음을 보면 자음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그 꿈은 벨사살에게 너희가 분리될 것이며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르시아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동음이의어에 대한 말장난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벨사살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느니라.

신바빌로니아 시대는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고도로 중앙화된 정치적 실체에 대해 제가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로 정치적인 실체들은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이미 바빌로니아 북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로 남은 일은 바빌론 도시를 점령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디아-페르시아인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지도에서 우리가 일전에 말했던 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제국을 가지고 있는 지도로 전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동쪽으로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제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이 존재하기 오래 전에 기원전 5천년과 4천년의 유적지에서 점령과 유물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란 대고원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수사와 엘람이었습니다. 1천년이 시작될 무렵 아리아인(Aryans)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생겼습니다. 이제 1천년은 1000년쯤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1000년쯤에 이 아리안 민족은 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가 완료된 후에는 다섯 개의 큰 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파수아 족과 마다이 족이고, 메대 족속과 페르시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다른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파르타바는 로마 시대 동안 지중해 동부 전체에서 로마에 대한 가장 큰 적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을 세상에 주었다. 그래서 파르타바는 하나의 부족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우리는 오순절에 파르디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다음으로 아라코시아인과 박트리아인이 있는데, 이들은 소위 페르시아 민족의 다섯 부족입니다. 메디아인, 페르시아인, 파르티아인, 아라코스인, 박트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아 사람들은 이곳 메디아-페르시아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은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트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라코시아가 있고, 여기 중앙에 파르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부족이 동쪽 지역을 가득 채웠고,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권력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점은 수천 년 동안 고대 세계에서 권력의 유일한 중심지는 메소포타미아였지만, 권력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권력의 중심이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마지막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제국 사람들의 경우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일어난 일은 결과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세계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이 부상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다시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권력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먼저 동쪽으로,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멸망한 제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제국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땅은 예전의 일부입니다. 토지는 생태학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옥하고 강력했던 이 역사적인 지역은 이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쇠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의 세력은 동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 동쪽은 우리 이익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아인들은 셈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도-아리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주했을 때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셈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셈어가 아니다. 메대-페르시아어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셈족이 아니며, 그들의 세계관도 셈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정학적 결과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고려 사항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획기적인 순간이다. 그것은 우리를 수세기 동안 지속된 페르시아 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독특한 결과를 낳는 제국입니다. 따라서 이 부족들이 연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메대 지파의 지배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왕들은 연합한 후에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 지파의 관계는 메디아 왕들을 다소 불안하게 만든 위대한 키루스의 등장 전까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고 다음 테이프에서 고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고대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고 곧 다음 테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21회기, 신바벨론 제국과 유다의 종말입니다.